

“住銀서 庶民住宅 1万 4千 820棟에 資金支援”

11日 住宅銀行에서는 庶民住宅 1万 4千 8百 20棟 建築을 資金面에서 支援을 한다고 한다.

資金供給의 主要内容을 보면 公營住宅 建築에 8億원, 民營住宅建築에 82億 7千 4百 萬원을 策定했다고 한다.

“昌慶苑 補修 4, 800萬원 들여”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올 上半期중에 4천 8백여 만원을 투입해서 昌慶苑을 補修한다고 한다.

날로 퇴색해만가는 古宮 補修工事は

- 古建物補修에 1천 2백만원,
- 케블埋設에 1천 2백만원,
- 기린放飼場을 비롯한 3件 工事に 8백 만원을 들여서 말끔히 단장한다고 한다.

“원호처, 서울, 尙州, 全州 支庁 建立”

원호처에서는 총 工事費 5천 9백33만 9천원을 投入하여 4.19紀念도서관新築工事등 5백만원 이 상규모의 4件 工事を 오는 3月부터 發注할 것이 라 한다.

工事別 所要予算額은 다음과 같다.

- 4.19기념도서관 신축공사 (34, 620, 000)
- 서울東部원호지청庁舎신축공사 (11, 821, 000)
- 尙州원호지청庁舎신축공사 (6, 336, 000)
- 全州원호지청庁舎신축공사 (6, 562, 000)

“專賣庁, 署, 支庁舍 40個所 新改築”

전매청에서는 올해 5억 9백90만 6천원을 들여 專賣署를 비롯한 支庁舍 및 研究試驗場등 40個所를 新改築한다고 한다.

“將兵住宅建立에 5 百억 投入”

국방부에서는 前後方將兵들의 住宅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총규모 5 百억원을 투입해서 建立한다고 한다.

前方에는 主要基地中心으로 官舍를, 后方에는 主要部隊 주변에 「아파트」를 建立하리라고…….

아스타일 施工法

안길성

현대인의 욕구를 채워주는 아스타일은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보기에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그 값어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필자는 1951년부터 미 8군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통해 한국 최초로 A-1자격증(최고자격증)을 미군으로부터 획득하였으며 미 8군 부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감독관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받아 세계기술을 전공하면서 경험을 통해 얻은 시공법으로 미 8군과 전국 아스타일을 사용한 건물의 90% 이상을 시공한 실적과 현재도 전국의 일류 고층건물은 모두 단독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건축시공에 다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집자)

1. 아스타일 시공 면에 대하여

아스타일을 시공할 상면은 어디까지나 굴곡이 없고 평탄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바닥일 경우

콘크리트 바닥은 도마 콘크리트를 할 때에 직접 시아게를 하면 상면이 단단하여 매우 좋으나 보통 콘크리트 위에 몰타 시아게를 다시 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공장만같은 도마 콘크리트를 할 때 직접 시아게를 하는 것이 타일의 수명이 길다. 직접 시아게 및 몰타 시아게는 고대질을 세번이상 하는데 두번째 시아게 부터는 사방 1자 되는 합판을

두개 깔아 놓고 그 위에서 시야계를 해야 하며 먼저 시야계가 된 부분 즉 수분흡수가 다 된 곳부터 시작하여 고대자국이 나 발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매끈하게 발라 나가야 한다.

물타 시야계가 끝나면 양생을 잘 시킨 다음 수분이 없도록 완전히 말린 다음 콘크리트 바닥위에 모래나 톱밥을 약 1cm 정도 깔아 두면 바닥에 흠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케인트나 세멘트가 떨어져도 배합이 되지 않으므로 청소하기에도 매우 편리하다.

푸라이마를 바르기 직전에 청소를 할 때는 톱밥에 물을 적시어 바닥에 뿌린 다음 비로 쓸면 먼지도 안 나고 톱밥에 먼지가 모두 묻어나므로 청소가 매우 깨끗이 되며 쓸어 낸 다음 푸라이마를 바른다.

② 마루바닥일 경우

네다를 1자 2cm 간격으로 놓고 5분 되는 판자를 깔고 그 위에 루핑을 깔고 다시 5분되는 합판을 깔아야 한다.

못을 박을 때는 염분을 칠하여 엷 비스듬히 박는 것이 좋으며 판자와 합판에 못을 박을 때는 나사못을 사용하면 더욱 좋다.

2. 실내온도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의 차이가 없을 때는 실내온도가 F60°가 정상인 바 외부의 기온이 0°C 이하일 때는 F65°~70°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영하 10°~15°C일 때는 F80°~90°의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타일의 저장온도는 실내외의 온도가 별 차이 없는 여름철에는 온도에 별로 주의가 필요 없으나 실내외의 온도차가 심한 겨울철에는 보관에 있어 온도의 조정이 특히 중요하다. (온도계의 위치는 바닥에서 1자 위에 장치함이 좋다.)

타일은 48시간 이상 저장하였다가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이 끝난 후에도 온도는 마찬가지로 유지시켜야 한다.

3. 푸라이마 바르는 법

바닥이 완전히 마른 다음 먼지나 오물이 없도록 잘 청소를 하고 푸라이마를 푸라이마 고대로 바르면서 즉시 솔로 여러번 문질러서 콘크리트와 접촉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푸라이마 고대는 1cm 정도되는 합판을 길이 20cm, 높이 15cm로 잘라서

고무를 1cm 정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푸라이마를 바른 다음 24시간 후에 타일을 붙인다.

4. 접착제 바르는 법

접착제 고대는 길이 15cm, 높이 15cm의 철판을 길이 15mm 정도의 톱날을 내서 그것으로 바른다.

접착제를 바른 후, 손으로 짚어 보아서 손에 묻지 않을 정도가 가장 타일을 붙이기에 알맞다.

5. 아스타일 붙이는 방법

타 공사가 끝난 다음 맨 나중에 시공 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늬는 같은 방향으로 엷 바꾸어서 붙이는 방법도 있으며 다이아몬드식으로 깔 때는 굽돌리를 돌리고 완자 무늬를 늘 수도 있다. 한편 아스타일의 색깔이 여러가지일 경우에는 빛갈이 비슷한 순서로 붙여서 깔아 나가면 결국 한가지 색의 타일로 보인다. 특히 밝은 색깔의 타일은 벽 밑으로 붙여 까는 것이 색깔 조정에 더욱 좋다. 그것은 장차 파손 및 훼손으로 보수를 요할 적에 색깔을 구별할 수 없게끔 하는 까닭이다.

아스타일을 붙인 다음 접착제가 골고루 퍼지게 하고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무게 60kg되는 로-라로 골고루 누르면 매우 좋다. 타일이 굳어 굳어 약간 떠 있을 때에는 도끼램프로 열을 가하고 소형 로-라로 누르면 접착이 잘 된다. 타일에도 도끼램프를 사용할 때는 램프의 불이 직접 타일의 상면에 닿으면 좋지 않다. 그리고 타일의 파편을 뜨겁게 하여 들떠있는 곳에다 놓고 밟는 방법도 있으나 소형 로-라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타일의 접착이 잘 되지 않고 바가지가 되는

이유는 접착제가 타일의 성질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일의 성질에 따라 적합한 접착제를 사용하여야만 접착이 잘 된다.

시공이 끝난 후에는 먼지나 오물이 타일 바닥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접착이 잘 된다.

6. 관리법

아스타일 바닥은 물결레질을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왁스를 바른 후 건조시킨 다음 왁스밧송으로 돌리면 광택이 난다.

물결레질을 부득이 해야 할 경우에는 물을 꼭 짜서 닦으면 무방하다.

타일이 완전히 접착 되었을 때는 비눗물로 닦아도 좋으나 항상 습기에 주의하여야 한다.